불교 스타트업 기업 8選

스타트업 기업들은 2010년대 IT열풍 이후 함께 등장했다. 당시에는 IT기반 회사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였다. 최근에는 IT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 걸친 업종까지 지칭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스타트업 폭발시대'다.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신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스타트업이 가진 파괴력에 주목하고 자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 각지의 똑똑한 젊은이들은 스타트업을 '쿨(Cool)'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 스타트업에서 세계적인 공룡기업으로 단시간에 성장한 실리콘밸리의 구글,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은 실력 있는 스타트업들을 거액에 사들이면서 창업자들에게 대박 신화를 안겨주기도 한다.

스타트업 불모지인 불교계에도 싹은 텄다. 다양한 스타트업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기업들을 소개한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한다.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길 기대해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전통공예 편집샵 '일상여백'에서 마인드디자인과 플랫폼 식구들이 밝게 웃고 있다. 마인드디자인은 불교 스타트업을 넘어 전통문화를 알리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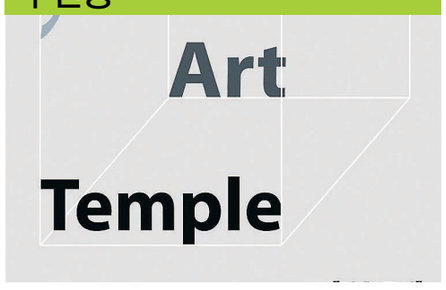
스타트업 불모지에도 싹은 피어났다

무아



무아는 청년불자들이 모여 불교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품으로 제작하는 청년 벤처로 2015년 12월 탄생했다. 현재 다양한 캐릭터와 캐릭터상품, 어린이포교를 위한 법회 교구와 교육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 대중들이 불교를 즐겁고 유쾌하게 느낄 수 있는 영상 콘텐츠와 상품들을 개발해 제작해 나가고 있다. 무아의 대표적인 상품은 어린이법회 교구 시리즈인 무아놀이와 일반 대중들을 위한 취미미술체험상품인 마인드래치다. 무아놀이는 다양한 불교교리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구이며 마인드래치는 궁궐 단청에서 사용된 칠보문양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하여 만다라와 결합한 취미미술체험상품이다.

주인공



아트플랫폼 주인공은 2016년 설립된 사찰 전시전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이다. 주인공에는 신용일, 이용섭 등 20여 명의 전통 · 현대 · 불교미술 작가들이 소속돼 있다.

불교미술포럼 '주인공다방'을 통해 전통 · 불교미술의 중흥을 도모하며, 작가들이 주인이 되는 공유갤러리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 전시전마다 크라우딩펀딩 사이트 와디즈를 통해 펀딩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28일에는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등에서 제1회 서울템플아트페어를 개최한 바 있다. 개별 작가 전시전의 문턱이 높아진 지금, 작가들의 사찰과 연계한 다양한 스타트앱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나



전통문화와 IT를 접목한 기업으로 스타트업 단계를 벗어나고 있다. 현재 불교계 사찰 홈페이지 등 IT기반 다양한 제작활동과 함께 템잡(불교취업정보센터), 템플러스(사찰안내도우미 서비스), 템몰(불자복지몰), 템스토리(스님들의 이야기), 다나방송 시스템 등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절로'를 통해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절로 서비스는 사찰과 불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게시판 내용을 자동으로 절로에 등록하도록 한다. 또 홈페이지가 없는 사찰과 불교단체를 위하여 절로CP라는 앱도 보급하고 있다.

마인드디자인



전통문화 박람회 및 캠페인 행사, 전통문화상품 개발과 디자인 브랜딩 등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불교계 소셜벤처기업이다. 특히 국제불교박람회를 주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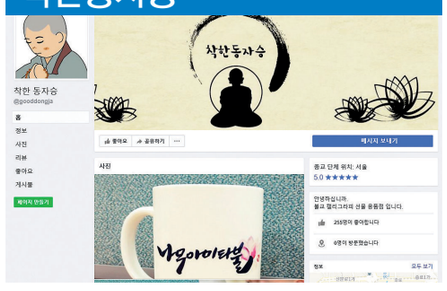
마인드디자인은 김민지 대표가 졸업작품으로 만든 불상을 모티브로 만든 쥬얼리에서 비롯됐다. 은과 백금으로 도금하고 큐빅을 박은 액세서리가 인기를 끌면서 마인드디자인이 시작됐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해 유통법인 '마인드플랫폼'을 설립, 전통공예품 온 · 오프라인 매장인 '일상여백'을 오픈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전통공예 디자이너의 제품을 소개하는 플랫폼이자 공간이다.

마음의숲



마음의숲은 김명권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심리상담 전문기업이다. 2012년 창립 이후 국내 최초로 노사 · 학회 협력으로 구축된 기아차 '마음산책'을 운영하고, 2013년 국민은행 심리상담제도 힐링카페, 두산 인프라코어 심리상담제도 두허그 등을 위탁운영했다. 현재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울산조선업 등 직장인심리상담(EAP)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마음의숲은 온 · 오프라인에서 직무스트레스 검사를 실시, 보고서로 작성해 관리한다.

착한동자승



불교 캘리그래피 선물용품점으로 캘리그래피는 독특한 손 글씨로 된 디자인이다.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불자들이 새겨야 할 것들을 꼽아 디자인해 판매하고 있다.

불교문화상품공모전에 출품해 입상도 했다. 연꽃이 새겨진 좌복과 담요를 한 세트로 제작한 '연화좌'를 출품해 입상하기도 했다. 아직은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스타트업으로 현재 착한동자승 페이스북(www.facebook.com/gooddongja)을 통해 주요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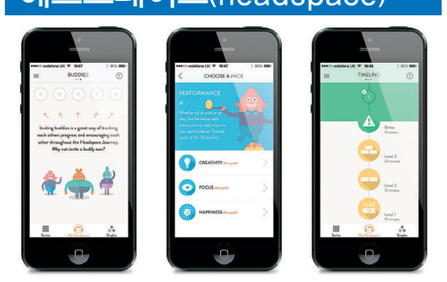
오붓



2016년 설립한 연꽃쿠키를 파는 1인 기업이다. 대표 박신영 씨가 특허를 받은 연꽃쿠키는 연잎과 백련초 등 천연재료를 활용했다. 기업 이름인 '오붓'은 오월의 붓다의 줄임말로 박 씨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꽃의 향취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붓을 창업했다.

현재 페이스북(www.facebook.com/ohboot)이나 전화주문을 받는 것 외에 사찰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베이커리 제품을 납품하는 길도 모색 중이다.

헤드스페이스(headspace)



헤드스페이스는 명상으로 맺어진 피어슨과 스님인 퍼디컴이 명상 수업을 계기로 의기투합해 만든 미국 명상앱이다. 퍼디컴은 명상을 가르치고, 피어슨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다. 헤드스페이스는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며, 1,2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수백 가지 명상 세션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큰 만족감을 부여,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성장했다.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과 운동선수들이 이 앱을 즐겨 이용하고 있다.

애국 · 생활 · 대중불교
새불교운동 중심 도량 천태종 삼광사
주지 김 세 운 스님
총무 박 도 선 스님 | 교무 허 자 룡 스님 | 재무 손 형 선 스님 | 노전 강 수 종 스님
사부대중 일동 합장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길 77
www.samkwangsa.or.kr TEL.(051)808-7111~6 FAX.(051)803-1332

Buddha's Birthday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사부대중일동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24 (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1
서울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0(가회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ngukzen.org

불교 & Start Up

"어떤 씨 뿌릴지 고민하는 불교계는 들으시오"

스타트업 멘토들은 이렇게 말했다

2017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영역의 풍향계도 쉴 새 없이 흔들리는 중이다. '스타트업'을 기치로 우리나라 경제는 새로운 성장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들어서 있다. 이런 국면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 스타트업의 가능성에 대해 불교계 안팎의 스타트업 멘토들의 조언을 모아보았다. 이들의 말 속에서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힌트를 얻어보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명경영 김재춘

"영리사업 일수록 불교 가치 전하는데 중점"

비영리사업 위주 활성화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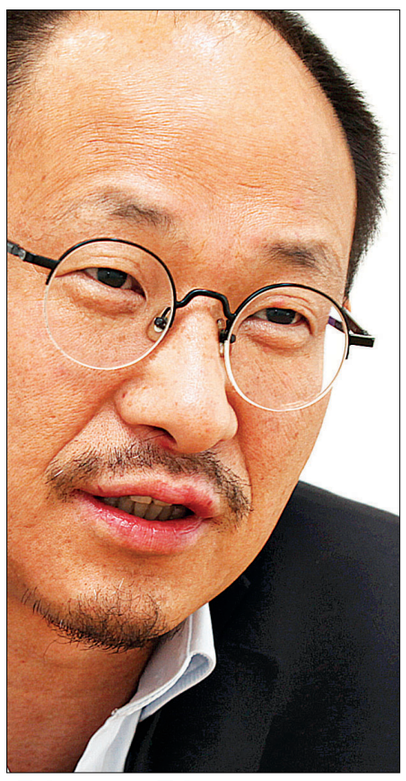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 소장

불교계 스타트업은 '삼보(三寶)'에 대한 가치를 중점에 두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불교 팔아 장사한다'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부처님 말씀과 팔정도의 정명(正命)을 토대로 사업과 제품을 개발하고, 그 운영방식은 비록 승가공동체는 아니지만 '율장'의 근본 정신을 차용한다면 진정한 '불교계 스타트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돈이 된다고 불교나 종단의 이름 아래에서 불교적 가치와는 다른 사업(예를 들면, 군수사업, 주류사업, 동물도살사업, 비환경 사업 등)을 하거나, 그 운영의 방식이 성접대, 불법로비, 노동 착취 등을 토대로 진행된다면 어찌 불교 기업이라 하겠는가.

또한 불교와 불교문화를 구분하여야 하며 불교 자체를 사업화하는 것은 많은 논의와 고민이 통해 소극적으로 하여야 하고, 불교문화를 사업화 하는 것은 '전통문화의 재해석, 현대화, 대중화'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이다.

모든 종교는 전국적인 조직망과 우호적 잠재고객들, 그리고 신문, 라디오, TV 등 관련 커뮤니케이션 채널, 공간 등의 물리적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몇 천 년간 이어져온 유무형의 자산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올바른' 불교계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은 불교계가 가진 정보(사람, 물자, 공간, 지식 등)를 공유하는 체계를 갖춰주고, 이 부분을 연계해줄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도 있다면 좋을 것이다.



협동조합 박주언

"'데드밸리(Dead Vally)' 넘기기, 개인보다 조합이 유리"

협동조합 비롯 경제공동체 육성

박주언 사람과사회적경제본부 본부장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 단계를 말한다. 사실 창업 준비기간인 1~2년 전까지와 창업 후 3~5년까지를 보는 시각이 많다. 이중 스타트업이 3년 차가 되면 '데드밸리'가 온다. 판로도 막히고 주체도 동력이 떨어지고, 자본도 떨어지는 시기다.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다보면 많은 이들이 이런 이유로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신도들의 신행활동이란 인식만 갖고 있다가 불교 자산을 활용한 비즈니스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라든지 판로, 개발비, 네트워크 등이 대규모 자본에 따라 갈 수 없고, 종교에 기반한 아이템을 가진 이들이 있지만 불교에 필요한 지에 대한 시장파악도 아직 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에서 개인들이 진행하는 스타트업은 실패 확률이 높다. 자본과 판로 등 '데드밸리'를 넘기기 어려워서다. 그렇기에 가급적이면 협동조합 형식이 바람직하다. 유무형의 특성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융합 사업으로 경쟁력 있게 접근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가치실현을 기준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동업 관계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원만하다. 동종 업종이든 이종 업종이든 지향하는 사람들끼리 융합을 통해 차별화를 이뤄내야 한다. 결국 불교계에서 스타트업을 활성화 시킨다면 이런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인적 토대, 제도 등을 뒷받침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것이 경제공동체가 되고 재가자 모임이 되어 부처님 당시의 장자계층과 같이 될 것이다.

불교사상 · 콘텐츠 제공, 결국 포교

오승훈 공익마케팅스쿨 대표

불교 스타트업은 불교의 사상적 배경과 일반인들이 접촉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다. 즉 불교 스타트업이 일종의 포교사다.

불교의 사상적 배경은 먼저 사유와 함께하는 철학적 깊이란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너무 깊고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노화됐다는 선입견도 있다. 불교 스타트업은 이런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4060세대는 기성불교계에서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다. 하지만 2040세대는 다르다. 불교 사상과 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스타트업은 미래세대 포교를 위한 하나의 좋은 방편이기도 하다.

불교계에서 이런 불교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실패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3년을 넘기지 못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상적 배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이해가 낮은 불교 스타트업이 있다면 그 가르침을 알려주어야 한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사상적 배경을 배제할 수 밖에 없지만 지원단계에서 해결한다면 스타트업이 사상적 배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불교문화와 사상을 활용하는 원천 소스를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 기업은 이런 원천 소스를 기반으로 재가공해 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불교 콘텐츠를 정리하고,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불교계에서 필요하다.

불교스타트업으로 사회적 문제해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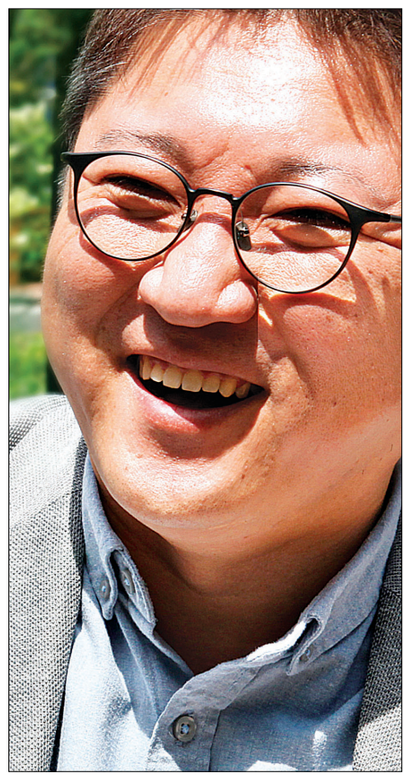
양기민 씨즈 청년네트워크 사업단장

불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창업을 통해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젠다'를 지원하는 임팩트 투자 방법이 있다. 임팩트 투자는 사회 문제이거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과제를 해결하고 싶은 창업 팀들의 제안을 받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면 지원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랜드 계열 스타트업 투자단체인 '미스크'(MYSC)가 있다. 미스크는 성장보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고 주로 노인 · 장애인 · 경단녀 · 탈북자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다. 소셜 벤처는 정부가 손대기 어려운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임팩트 투자는 이런 소셜 벤처에 투자해 전체 생태계가 돌아가도록 돕는다.

불교계 입장에서도 창업인에 대한 지원은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 단순히 '불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불교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투자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실 창업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이중 불교계 스타트업은 불자들이 활동하는 것, 불교의 가치가 확대되는 것, 불교의 역량들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불교계 스타트업 기업들의 대부분이 사업이 지속되다 보면 외부로 기업 영역이 확대된다. 결국 불교 가치의 확대 방면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가치 확대 국면에서 복지의 관점에서 창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면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가야 한다.



원천소스 오승훈

"불교 스타트업은 또 다른 포교, 콘텐츠 정리해 제공"



아젠다 양기민

"사회 필요처에 임팩트 투자 불교 가치 효율적 실현"

◆ 가치혼합경영연구소는

가치혼합경영연구소는 효율성이라는 영리적 가치와 공익성이라는 비영리적 가치를 융합하여 공익적 활동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연구전문기관이다. 사회적경제, 비영리, 공공기관, 종교 분야에서 컨설팅, 멘토링, 강의, 연구개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통합적 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공익마케팅스쿨은

공익마케팅스쿨은 '마케팅의 공익적 활용'을 이슈로 활동하는 단체다. 2013년 1월 시작된 공익마케팅스쿨은 대학생들에게 마케팅 교육을 하고, 이를 배운 이들이 공익적 활동에 직접 마케팅을 활용한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캠페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드림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단체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 사람과사회적경제본부는

전신인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가 개편된 조직으로 불교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각종 창업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창업아카데미 등을 통해 창업컨설팅을 하고, 자원연계, 네트워크 지원, 도심사찰과 연계한 판로 확대 등도 지원한다. 또 공공기관 지원공모사업이나 사회적 경제 시니어 관련 교육도 맡고 있다.

◆ 씨즈는

사단법인 씨즈(Seeds)는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다. 씨즈는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보조하기도 한다. 5년간 300여 스타트업과 사회적 기업이 씨즈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현재 씨즈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단체들과 협업으로 꾸려나가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12지 석등불사 안내

선본사(갓바위)에서 인. 허가확정으로 천년을 이어갈 부처님의 불법을 밝히는 12지 석등불사를 봉행합니다. 등불은 어둠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칠흑같은 어둠도 작은 불빛으로 밝혀지듯이 미혹의 어둠이 자신을 가릴 때, 갓바위 12지석등의 광명으로 탐.진.치 삼독은 소멸되고 발원자 소원성취 됩니다. 수희동참(隨喜同參)하시여. 액난소멸, 가족건강, 무량복덕, 소원성취 하시길 발원합니다.
나무십이상원약사여래불

계좌번호 : 국민은행638101-04-189749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문의전화 : 053-851-1869 053-851-9877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주소 경상북도 와촌면 갓바위로 699 | 전화 053) 851-1868~9